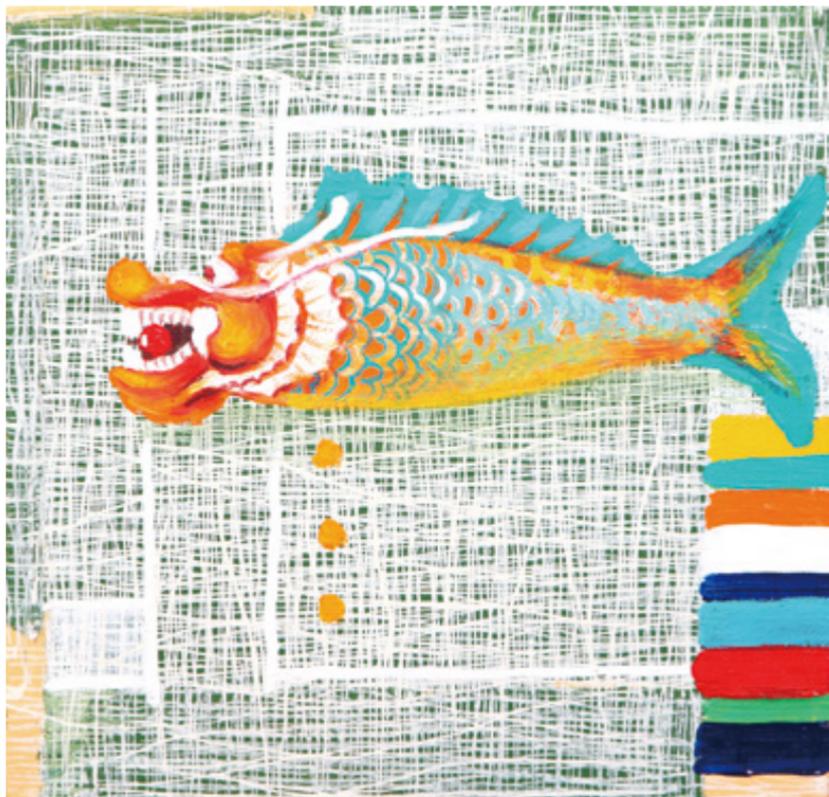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9.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 2019 / 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겨울을 보내면서
처음 마음으로	08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길상사 시간여행	13	길상사 요사체에 대해 ①
스님 평안하소서!	18	소욕지족
	22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26	법정 스님 이야기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30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며
시심청심	33	보물 세 가지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34	마이애군 옥수수 추장님
모단 에세이	38	겨울이 가거들랑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정보	42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88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겨울을 보내면서

글·법 정(法 頂)

엊그제 정월 보름날로 90일간의 겨울철 안거(安居)가 끝났다. 이곳 불일암에 와서 여덟 번째로 지낸 겨울 안거다. 1978년 병어리가 된 채 묵언(默言)으로 지내던 그 겨울과 지난겨울이 내게는 고마운 시절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수많은 안거를 치렀지만 그때마다 의미와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련한 자기 질서를 순일하게 지속시키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안거제도는 2천5백여 년 전, 불타 석가모니가 생존하던 초기 승단에서부터 시작된 승가의 전통적인 엄격한 생활 규범이다. 그 시절 인도의 불교도들은 4월 15일(혹은 5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우기(雨期)에는 한곳에 정착했다.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 본의 아니게 풀이나 벌레를 밟아 죽이게 되므로, 동굴이나 절에 들어앉아 수도에만 전념했다. 이것을 우안거(雨安居) 또는 줄여서 안거라고 불렀다. 비가 내리는 우기에 행해지는 반성과 학습이다. 그 나머지 기간은 편력(遍歷)을 하면서 수행과 교화활동을 한다.

따라서 출가 수행자들은 육신의 나이는 세지 않고, 이 안거를 마치게 되면 자연 법의 나이 혹은 승(僧)의 나이가 하나씩 보태진다. 기후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겨울철이 춥기 때문에 음력 10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산문(山門) 밖에 나

다니지 않고 절 안에서만 정진 수도한다. 가톨릭 용어를 빌면 90일의 피정(避靜) 기간인 셈이다.

여름 안거에는 무덥고 개방적인 계절이라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뭇잎이 지고 시냇물소리도 숨을 죽인 겨울철은 비교적 집중하기가 쉽다. 낙엽이 다 지고 환철한 줄기와 빈 가지만 허공에 뻗어 있을 때 그것은 본질만 남은 나무의 본래 모습, 사람도 떨쳐버릴 것을 다 떨쳐버리고 나면 본래의 자기 모습만 남는다. 본래의 자기로 돌아올 때 나무도 사람도 다 같이 단순하고 순수해진다. 이런 단순과 순수 속에서 자기 응시를 통해 새로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다. 거듭거듭 새롭게 탄생한다.

출가 수행자에게 이 같은 자기응시의 기간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돌레의 흐름에 물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안거기간을 승가에서는 무엇보다도 고맙고 귀하게 여긴다.

지난겨울 나는 석창포와 수선(水仙)과 난(蘭)과 석곡(石斛)과 함께 지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석창포는 3년 전부터 겨울마다 한방에서 눈길을 마주 보내며 살아온 정든 사이다. 요 며칠 동안 매화우(梅花雨)가 내려 가지마다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고 봄새들이 다시 찾아와 노래하게 됐으니 석창포도 골짜기가 그리워질 그런 계절이다. 오늘 낮 그 고향 집에 데려다주었다. 돌아서면서 자꾸만 뒤돌아본 것은,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석란(石蘭)이라고도 부르는 석곡은 서울의 박 화백이 지난해 늦가을 인편에 이런 사연과 함께 보내온 것이다. '공해 속에 시달리다 스님 방으로 출가하는 석곡이 무척 좋아라 합니다. 저는 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요. 식물도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석곡의 상태를 편지 끝에 열거해 보내주었다. 수류

화개실(水流花開室)의 밝은 창가에서  
진초록 무성한 앞에 싸여 겨우내 꽃을  
피웠다. 보는 사람의 마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안개가 끝나는 해제(解制)날  
마침 덕스러운 한 어머니가 왔기에 선  
뜻 안겨 보냈다. 나는 한동안 암자를  
비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테니 그  
를 맡아 길러줄 보모가 필요해서였다.

양력 설날 광주에 사는 재희네 엄마  
가 절에 오면서 꽃망울이 부풀어 오른  
난초분을 하나 가지고 왔다. 다래헌 시  
절 난초를 시중드느라고 마음깨나 썼  
던 경험자로서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꽃을 보면서 향기를 들으라고 일부러  
멀리서 가져온 그 향기로운 마음이 고  
마워 혼연히 맞아들였다. 우리 방에 시  
집온 지 여드레 만에 꽃은 은은한 향  
기를 풍기면서 문을 열었다. 초승달치  
럼 가녀린 꽃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  
에서도 조심스럽게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난초꽃은 달이 바뀌어도 이울  
지 않고 피어 있었다. 곁에 어린애를

두고 사는 그런 느낌이었다. 해제날 그  
난도 안거를 마치고 다시 옛집으로 돌  
아갔다.

수선(水仙)은 의대생인 상순이가 제  
주도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얻어온 것  
이다. 그는 엉뚱한 짓을 잘한다. 한번  
은 장미꽃을 한 아름 소포로 부쳐와  
나한테 야단맞은 일도 있다. 살아 있  
는 꽃을 소포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생명을 지닌 꽃을 왜 그  
토록 확대하는가. 네덜란드나 영국 같  
은 나라라면 또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우편제도가 아직도 엉성한 곳에  
서는 꽃을 소포로 부친다는 것은 말  
도 안 된다.

가져올 때 꽃망울이 맺힌 걸 화분에  
옮겨 심고 날마다 한 차례씩 물을 주  
었다. 그의 이름이 물을 좋아하는 수  
선이니까. 꽃은 50일도 넘게 짙은 향  
기를 내뿜으면서 마냥 피어 있었다. 참  
으로 저력이 있는 기특한 꽃임을 이번  
이야 처음으로 알았다. 눈 속에 피는

꽃이라서 그런지 노래의 가사처럼 불  
일 곳 없는 정열을 가슴 깊이 감추고  
찬바람에 쓸쓸히 웃는 적막한 얼굴이  
었다.

이제 겨울의 내 권속들을 모두 보낼  
테로 보내고 나니 방 안이 텅 비었다.  
별리(別離)의 빈자리가 행하다. 그렇지  
만 이 빈자리가 오히려 홀가분해서 좋  
다. 그 애들도 이 밤에 나를 생각할까?  
저마다 돌아간 곳이 낯설지는 않겠지  
만 한겨울을 한방에서 살았으니 더러  
는 생각이 날 것이다. 식물도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했으니까.

인연 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다해  
흩어진 우리.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우  
리는 무량집(無量劫)을 두고 되풀이하  
면서 살아오고 있을 것이다. 세월이 가  
면 그림고 아쉬운 마음도 희미해질 것  
이다.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인생을 이야  
기하고 사랑과 이별을 꺼내고 또한 죽  
음을 말할 것이다.

이 봄에 나는 또 길을 찾아 나서야겠

다. 이곳에 옮겨와 살 만큼 살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자리로 옮겨볼 생각이  
다. 수행승이 한곳에 오래 머물면 안  
일과 타성의 늪에 갇혀 시들게 된다.  
다시 또 서투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영원한 아마추어로서 새 길을  
가고 싶다.

이 봄에 나는 다시 한 번 소유와 관  
계를 가지치기하고 정리할 것이다. 묵  
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것을 받아들  
일 수 없다. 이미 알려진 것들에서 자  
유로워져야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  
다.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  
는 것이지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만들  
어주지는 않는다.

나는 보다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  
리고 없는 듯이 살고 싶다. 나는 아무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  
그저 나 자신이고 싶다. 지난겨울이 나  
에게 고마운 것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럼, 겨울이여 안녕! (1983)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글 • 덕 일(德日)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려 두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뵈게 되었습니다. 저번 달 초하루 법회에서는 금강선원의 혜거 큰스님께서 내방하시어 우리들에게 감로의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큰스님의 살아있는 듯 생생한 가르침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지중하게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은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셔서 지금껏 삭발 염의하시고 대중교회와 전법활동에 법체를 아끼지 않으시고 후학들의 모범이 되시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큰스님의 설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법당과 앞마당 두 곳 그리고 설법전에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봉행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3

년 독경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2,050명의 신도분이 다가올 신년을 맞이하여 기도에 동참하였고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지 작성과 촛불 발원을 올려주셨습니다. 살을 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동참하여 신명 나고 신심 나는 독경기도를 마치고 원만회향 하였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불자님들도 상경하여 동참하셨다하니 다라니기도의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길상사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고 적극 권선하는 기도정진 도량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정 큰스님께서도 모든 전각이 갖춰지고 외향적으로 보이는 절 보다는 수행이 먼저 우선되는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창건 법회 법문에서 거듭 강조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법의 등불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법등(法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부대중이 원용화합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 있습니다. 물론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불기 2563년인 올해는 60갑자로 기해(己亥)년, 즉 돼지띠의 해입니다. 60년 만에 다가온 황금돼지의 해인데 땅의 황금빛을 나타내는 기(己)가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돼지(亥)와 결합되었으니 사람들의 기대감은 어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돼지는 재물과 풍요 이외에도 다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다산을 중요하게 여긴 고대 이집트인은 짧은 임신기간에 10여 마리의 새끼를 한 번에 낳은 돼지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선 돼지를 불결한 동물

로 치부하여 먹는 것은 물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돼지를 똑똑한 동물로 묘사하기도 했으며 미련하거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대상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돼지는 코끼리, 사자, 원숭이, 개 등 불교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에 비하여 빈도는 현격히 낮지만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가 등장하는 경전은 「본생담」, 「중어함경」, 「범망경」, 「대승열반경」 등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담」에서는 돼지가 의리 있고 영특하며 지략이 있음을 밝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날 숲속에 파놓은 함정에 빠진 돼지를 한 목수가 구해 집에서 길렀습니다. 돼지는 영특하여 구해준 목수를 위해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목재를

웁길 때 이빨을 이용해 굴리기도 하였으며 도끼, 대패, 망치 등 도구를 가져다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목수는 돼지를 숲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돼지를 계속 키울 경우 야생성이 없어져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힐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수의 품을 떠난 돼지는 숲속을 헤매다 한 동물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매일 포악한 호랑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겁이 많이 났지만 지략이 뛰어난 돼지는 동물들을 모아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호랑이는 돼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돼지의 영민함으로 동물들의 괴로움을 해결시키는 대목입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초대형 화재 속에 홀로 남겨진 돼지의 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4명이 죽고 180명이 부상당한 미국 테네시주 개틀러버그의 대형화재에서 이곳에 거주하던 립 홈

즈의 가족은 산책을 태우며 집 쪽으로 다가오는 화마를 피해 황급히 피신하여야 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몸집의 개와 고양이는 데리고 나왔지만 거대한 반려동물인 돼지 <찰스>는 어쩔 수 없이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립 홈즈는 화재이후 자신의 SNS에 “지옥과 다르지 않았다. 나무가 불길로 물결쳤고 우리는 차도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탈출했다.”며 당시를 회상하였습니다.

집을 나오고 머지않아 아직 찰스가 남아 있는 가족의 집은 완전히 불타 버리고 맙니다. 근처 호텔에서 피신하던 홈즈는 찰스가 꼼짝없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는 크게 낙담하였다고 합니다. 험한 불길이 진압되고 다시 집을 찾은 홈즈의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불길 속에 내버려진 찰스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찰스는 합금마저 녹이는 800도의 불길 속에서 버티고 버티었다고 합니다. 돼

지는 지능이 상당히 좋은 동물입니다. 찰스 돼지는 불길이 엄습하자 생존을 위하여 땅속에 자기 몸을 파묻었습니다. 심한 탈수 상태에서 발바닥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지만 찰스가 화마와의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삶의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지혜가 솟아올라 위기에서 벗어나고 액난을 소멸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일본에서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가 지인분의 소개로 직원과 함께 길상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절이지만 청결하고 나무가 우거져 공기가 청량해서 좋다는 방문 소감을 말했습니다. 차담 중에 우리나라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질문과 관심을 많이 갖기에 불제자이시냐고 넌지시 여쭙보았는데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평생 부처님 진리의 법에 의지하여 살았고 지금도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불자로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수성가하여 중소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본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인 고노스케 회장의 경영이념을 되새기며 힘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고노스케 회장은 아흔넷의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 570개 기업에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있었는데 항상 주위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자신은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은혜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났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말하자 회장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

## 길상사 요사채에 대해 ①

글 • 홍정근

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이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 마찰을 즐겨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고 있다.”

회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고 노력하여 누구보다 값지고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오직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

습니다. 새해에는 힘이 들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간절하게 일거수일투족 심신을 오로지 불보살님께 의지하며 후회 없이 불제자답게 잘 살아야 합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과(道果)를 얻는다. 그러므로 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구한 바를 반드시 얻는다.”

여러분! 새해 신년에 몸과 마음을 삼가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이보다 더 참된 재앙 예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니깐요. 항상 웃는 얼굴과 사랑스러운 말로써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한해가 되길 발원하면서 오늘도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절이란 말은 우리의 고유어이고, 한자어로는 사찰(寺刹), 가람(伽藍), 정사(精舍)라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에 한 곳에 일정한 거처를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수행을 한 것이 아니었기에, 절이 없었으나 나중에 정착의 필요가 생기게 되어 처음 절을 시주받은 것이 죽림정사(竹林精舍)였고, 이것이 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 중 하나가 정사이며 정사와 절은 차이가 없다.

정사(精舍)란 ‘학문을 부지런히 배우는 수행자가 사는 집’이라는 의미다. 부처님 당시의 죽림정사는 가란타(迦蘭陀) 장자(長者)가 자기 소유의 죽림을 바쳐, 많은 스님이 이 죽림 안

에 있는 나무 밑이나 자연 석굴에서 거주하였으나, 마가다 국왕 빔비사라가 비나 이슬을 피할 수 있도록 오두막 60채를 지어 기증하게 됨에 따라 불교 최초의 사찰이 생겨났다. 그 뒤 정사는 차츰 격식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로 바뀌었고, 그 규모도 커져 석가모니 생존 당시 최대 사찰로 전해지고 있는 기원정사(祇園精舍)가 이루어졌다.

요사채(寮舍寨)는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스님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며, 법당에 대웅전과 극락전 등의 이름이 붙듯,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는다.

- 불기 2562년 음력 12월 초하루 법문(2019년 1월 6일)

그리고 스님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수행과 의식주 해결을 비롯하여, 기도 하러 온 신도들이 잠깐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사찰의 사무를 관장하는 종무소와 여러 명이 생활하는 대중방(대중공사), 선방, 강원, 율원도 요사채에 속하며, 창고, 우물, 장독, 세탁시설, 화장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한데 모여 있기도 하다.

사찰 요사채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심검당(尋劍堂), 적묵당(寂默堂), 설선당(說禪堂)을 들 수 있는데, 심검당은 지혜의 칼을 갈아 무명(無明)의 풀을 베는 뜻이고, 적묵당은 말없이 참선한다는 뜻이며, 설선당은 강설과 참선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이밖에 향적전(香積殿)은 향나무를 떨어감으로 하여 법당에 올릴 공양을 짓는다는 뜻이고, 염화실은 조실스님이나 지혜와 덕망이 높은 스님(大德)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듯 요사채는 세속의 건물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당

호에서 수행의 상징적 의미가 물씬 배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길상사는 개원 당시 전각과 요사채에 대한 운영방침으로 '기존의 건축물들은 목조 한옥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극락전과 일주문, 종각, 선방, 설법전, 도서자료실, 대·소형 세미나실 등을 비롯한 수행도량으로 면모를 바꾸고, 정갈한 정원과 짙은 숲, 갖가지 꽃나무 등으로 이뤄진 주변 경관을 최대한 살려 수행은 물론 마음의 쉼터로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꿀 것과 현대인들을 위한 선(禪) 수행의 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임의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다른 사찰에 비해 특이한 점이 많은데, 특히 요사채는 대원각 시절 곳곳에 있던 별채들을 없애지 않고 대중 스님들의 처소로 쓰고 있다. 이번 호에는 길상사에서 스님이 수행하며 생활하는 요사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호에는 길상사에 있는 여러

요사채에 대해 해석(解析)하고자 한다. 단, 해석의 차이는 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 스님이 수행하며 생활하는 요사채

■ 청향당 : 청향(清香), 맑고 향기로운.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임을 요사채 당우에도 표기한 듯하다.

■ 길상헌 : 길상화(김영한) 보살이 생전 머물렀던 처소로, 대원각 시절에는 자야오당(子夜吳堂)이었다. 현재는 주지 스님의 처소이다.

■ 송월각 : 송월(松月), 소나무 한그루가 마당에 있어 늘 푸른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 소나무처럼 푸르고 광명의 달처럼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옛 이름은 송풍각이었는데, 풍(風)자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月)자로 바꾸었다. 구참 스님이나 법사 스님이 오셨을 때 머무는 처소로

사용하고 있다.

■ 월조헌 : 월조(月照), 마음 달이 비치는 집. 서산 대사(西山大師) 7대 선법을 이어 부산 장안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 후기 선종의 월조(月照) 대선사(大禪師)가 생각이 난다.

■ 적묵당 : 적묵(寂默)이란 ‘조용하게 물러나 혼자 사는 것, 번뇌가 가라앉는 것’을 뜻한다. 적묵당은 길상사 창건 초기 시민선방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위치의 길상선원을 개원한 후에는 연꽃공방으로 쓰이고 있다.

■ 능인당 : 능인(能仁), 능히 어짐을 베푸는 뜻으로 고타마 붓다의 다른 이름이다.

■ 죽림당 : 죽림정사(竹林精舍)를 말한 듯.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가란타 장자가 부처님께 귀의하여 죽림원(竹林園)을 바치고, 빔비사라 왕이 그곳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하여 지은 인도 마갈라국 가라타촌에 있었던 불교 최초의 기림이다.

■반야당 : 반야(般若)는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를 말한다. 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각성하는 것, 성불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중생을 교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는 진실한 지혜를 말한다.

■정인당 : 정인(靜忍), 인욕을 행하여 심신을 평안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어진 듯하다.

■육화당 : ‘육화경법(六和敬法)’은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깨달음을 성취해야 하는 여섯 가지 도리로 송(宋)나라 고승(高僧)인 목암선향(睦庵善響) 스님이 설했다고 한다. ‘육화합(六和合)’ 혹은 ‘육화(六和)’라고도 하는 이 여섯 가지 도리는 불교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며 수행 생활에서 생기는 불화나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분명하고 확실한 도

덕적 윤리적 해결책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는데 이것이 ‘육화경법’의 가르침이다.

■보시실 : 보시바라밀, 자기의 소유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베풀어 주되 올바른 곳에 베풀어야겠다. 법보시(法布施), 재보시(財布施), 무외보시(無畏布施)가 있다.

■지계실 : 지계바라밀, 말 그대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불교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율로써 일반 불자에게 있어선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의 오계가 있고, 출가한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각각 250계, 348계의 구족계(具足戒)가 있다. 지계바라밀은 이러한 계율들을 잘 지키며 예의와 규범, 언행을 단정히 하는 수행을 말한다.

■인욕실 : 인욕바라밀, 괴로움을 받아들여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박해나 고통을 잘 참고, 도리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원함과 노여움을 없애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내핍되어 참기 힘든 것을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 욕망을 이겨내는 것 또한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진실 : 정진바라밀, 위에서 언급한 보시, 지계, 인욕을 쉬지 않고 정진하여 열심히 닦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정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있는 믿음이 더욱 증장하는 것이다.

■선정실 : 선정바라밀, 마음의 번뇌를 가리앉히는 것. 수행·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깊게 통일된 상태이다. 존재의 실상을 밝히는 것으로 선(禪)이 중요한 수행법 중의 하나가 된다.

■지혜실 :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한다. 육바라밀에서 이 지혜바라밀은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다섯 바라밀을 총체적으로 통합한 것

이다. 이 지혜바라밀은 어리석음을 고쳐 모든 진리를 밝게 아는 예지, 진리를 체득함을 말한다.

■만행실 : 만행(萬行), 수행하는 모든 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행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일만 가지를 행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온갖 수행을 가리키는 말이며, 구체적으로는 육도만행(六度萬行), 즉 ‘육바라밀(六彼羅寶)’을 닦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보시실·지계실·인욕실·정진실·선정실·지혜실을 합쳐서 육바라밀실이라고 하며, 바로 옆에 만행실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소욕지족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흥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

사랑의 실천이란 자기와 타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합일(合一)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달혀진 나」로부터 「열려진 나」로의 비약일 수 있다. 삶은 대결이 아니라 포용이기 때문이다.

-산방한담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홀로 사는 즐거움

우리는 서로서로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한 부분이다. 증오라는 원한의 칼로 남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 칼이 자기 자신을 먼저 찌르지 않고는 맞은편에 닿을 수 없다.

-말과 침묵

나무의 가지치기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도 불필요한 결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엷히고설킨 결가지 때문에 삶의 줄기가 제대로 펼쳐질 수 없다면 한때의 아픔을 이기고서라도 용단을 내려 절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관적인 틀에 박힌 고정관념부터 잘라내야 한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춰보지 않고서는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에 걸려서 앓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인지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물소리 바람소리

우리 둘레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날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다.

-버리고 떠나기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로써 만족을 해야지 둘을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건 허욕이다.

하나로써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은 그 하나 속에 있다. 둘을 얻게 되면 행복이 희석되어서 그 하나마저도 잃는다.

흔히 이렇게 말하면 그러다 언제 잘 살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 산에는 꽃이 피네

차지하는 것과 쓸 줄 알고 볼 줄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쓸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른다면 그는 살 줄도 모른다. 그저 하나라도 남보다 더 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오늘의 우리들은 탐욕의 노예인지도 모르겠다.

- 인연 이야기

별 밤을 가까이하라. 한낮에 닳아지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심성을 별 밤은 부드러운 눈짓으로 다스려줄 것이다.

- 버리고 떠나기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 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 산에는 꽃이 피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나는 일은 새로운 삶

의 출발로 이어진다.

미련 없이 자신을 떨치고 때가 되면 푸르게 잎을 틔우는 나무를 보라. 찌들고 퇴색해가는 삶에서 뛰쳐나오려면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 버리고 떠나기

바닥이 얇은 개울물은 소리 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 말과 침묵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한다.

보람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이다.

- 물소리 바람소리

과거는 강물처럼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저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 산에는 꽃이 피네

##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길상사 진영각 방명록에서)

스님의 맑은 마음이 이 세상에 골고루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

스님의 자애로운 눈에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갑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동안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도록, 더 많은 상처를 나에게 남에게 주지 않도록 스님께서 항상 같은 곳에서 용기를 주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한참을 울다 갑니다. 이 눈물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쓸려 내려가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끄러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행복함을 알고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 안의 허물을 벗어내지 못한 미련함에 스님의 모습이 송구스럽습니다. 다 벗어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해주시리라 믿으며... 그곳에서 편안하십시오.

\*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제 마음이 복잡하여 왔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결국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겠지요?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니 부끄럽습니다. 더 정진하고 배우며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도록 살피주세요.

\*

스님 저 다녀갑니다. 무더운 여름날인데... 스님의 공간은 시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노력으로 정진하신 스님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 잊고 지냈습니다. 다시, 부지런하게 정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뜨거운 여름 열기를 뒤로하고 허우적대며 길상사 진영각 텃마루에 걸터앉는다. 스님의 의자에 앉아 마음을 정돈하니 그제야 바람이 시원해진다.

\*

늘 오면 편안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정 스님.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가난한 사람이 먼저 다치고 사망합니다. 스님의 뜻대로 날마다 적은 생활용품만 사용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인간이 만든 자연재해를 지구가 얼마나 버틸지 심히 걱정되는 여름입니다.

\*

스님 다녀갑니다. '향 짙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생선을 쓴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 늘 기억하겠습니다.

\*

스님의 말씀처럼 비우니 가득 찼습니다. 이토록 오래도록 향기가 남는 것은 그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류의 평화와 자비로 환히 비취 주리라 믿습니다.

\*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흐르는 세월이 아쉽지 않은 건 순간순간 사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무한의 삶이 아니기에 더 아름다운 생을 살겠습니다.

\*

세상이 맑고 향기로워지도록 하는 데 저도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 삶이 더 맑아집니다. 늘 감사합니다.

\*

스님의 자취를 따라 길상사 경내를 걷습니다. 스님의 청정한 마음 따라 비우는 마음 간직하여 살아갑니다.

\*

스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있음에 여유롭고 평화롭게 잠시 쉬어 갑니다. 고맙습니다.

\*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겠다는 결심, 다시 다지고 갑니다.

\*

법정 스님, 그럽습니다. 저희들은 스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걸어갑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운 스님! 오늘도 다녀갑니다. 꽃으로 피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보고 계시죠?

\*

스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평생 무소유와 청정도량의 완성을 위해 진력하신 스님을 보며 다시금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갑니다.

\*

비 그치고 산책하기 좋은 날, 길상사 나들이에 정신이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길 다시 빌어봅니다.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

\*

스님! 여기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요한 미소, 칼칼하면서도 부드러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스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인간이기에 무념무상, 완전한 무소유는 힘들지만 나를 만들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빈공간의 팍 채움을 누리보려 합니다.

\*

스님! 오늘 길상사 창건 21주년이어서 다녀갑니다. 짧은 법문 속에 스님의 법문도 전해 들었어요. 다시 한 번 깊은 감명과 올림도 받고 갑니다.

지난여름 저의 아들과 많은 번뇌를 내려놓고 갔는데, 이번에 부처님과 스님의 보살핌으로 모든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고 축복과 행복의 길을 열어줄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제 세 아이의 아빠가 되어 또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살게 될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의 아들의 행복과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가 살아가며 갚겠습니다.

저의 아들은 행복한 꽃길만 걷게 하여 주세요.

스님, 고맙습니다.

---

- 진영각을 다녀간 많은 분의 글 중에서 몇 개 가려 뽑았습니다. 방명록에 담아놓은 속 깊은 이야기가 스님에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 법정 스님 이야기

글 • 백형찬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난 곳은 전남 순천 송광사였다. 당시 나는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불교의 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라즈니쉬의 명상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전공인 교육학과 불교의 선을 연결시켜 학위 논문을 쓰려고 고민 중에 있었다. 마침 송광사 서울분원인 법련사에 갔다가 ‘출가 4박 5일’이라는 참선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용기를 내어 출가(?)하기로 결심하고 신청서를 냈다. 얼마 후에 입산(入山)하라는 연락이 왔다.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순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시 시내 버스를 타고 송광사에 도착했다. 참으로 먼 거리였다. 드디어 우리나라 삼보 사찰 가운데 가장 유서 깊은 절인 송광사의 일주문에 들어섰다. 4박 5일 대침묵 수행이 이루어질 사자루 밑으로 조계산의 세찬 냇물이 큰 소리를 내며 흘렀다. 용맹정진하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젓빛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입소식을 하였다. 그때 법정 스님이 나타났다. 스님이 바로 수련원 원장이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쁘던지, 수필집 『무소유』 「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스님을 알고 있었다. 늘 맑고 향기로운 글을 써서 스님의 글을 읽으면 들떠 있

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곤 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진 않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늘 가득했다. 그러한 스님이 바로 내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스님이 불일암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 수련이 끝나면 곧바로 그곳으로 찾아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서 수련생들은 스님과 기념 촬영을 했다. 그때의 사진을 아직도 내 사진첩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흐른 사진이지만 사진 속의 스님 모습은 잣나무처럼 꼳꼳하고 청정하다. 계속되는 대침묵 가운데 수련은 종반에 들어섰다. 출가 4박 5일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다. 시원한 수박이 나왔다. 스님이 입을 열 기회를 주었다. 수련생들은 수박을 먹으며 자기를 소개하였다. 거의 나흘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려고 하니 입들이 잘 돌아

가질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 스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원시인들의 입술을 보면 두툼하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입술을 보면 얇아요. 원시인들은 꼭 할 말만 하기 때문에 입술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할 말 안 할 말 너무나 많은 말들을 뱉어내서 입술이 다 닳아 얇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할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일체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말은 소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후에 법명(法名)을 받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였다. 나는 가톨릭 신자라 손을 들지 않았다. 스님은 한 사람씩 차례로 면담을 하였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다. 스님은 불일암 흐르는 냇물에 발을 담그고는 수련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법명을 지었다. 그다음 날 아침에 스님은 수련생을 한 명씩 부르며 팔뚝에 붙붙은 향으로 세 군데 점

을 찍어 주었다. 그러면서 밤새 지은 법명을 하나씩 내려주었다. 나도 그때 법명을 하나 받아놓을 걸 이라는 후회가 지금에서야 든다. 이제 송광사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스님은 이별의 선물로 커다란 부채를 하나씩 주었다. 하얀 바탕에 먹으로 참선하는 모습을 그린 둥근 부채였다. 다시 속세로 가면 이곳 송광사 사자루에서의 출가 4박 5일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라는 마지막 가르침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법정 스님을 두 번 뵈었다. 실제로 만난 것이 아니라 스님의 '흔적'을 통해 뵈었다. 한번은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다. 특이하게도 남학생 한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바로 그 남학생은 법정 스님이 무척이나 좋아하였던 동화작가의 아들이었다.

당시 학생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서 유아

교육과 학생 몇 명이 실습하고 있었다. 난 실습지도자 그곳을 방문했다가 원장실에 걸려있는 작품에 눈이 갔다. 특이한 글씨였다. 동화작가가 살아있을 때 스님이 써주었던 것이다. 마치 스님을 뵈는 것처럼 무척이나 기쁘고 반가웠다.

또 한 번은 현재 몸담고 있는 학교의 어느 교수님 연구실에 갔을 때였다. 연구실 벽에 법정 스님이 붓으로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다기(茶器)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명산에는 좋은 차가 나고 또한 그곳에 좋은 물이 난다.'라고 쓰여 있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갑던지, 깜짝 놀라는 내 모습에 그 교수님도 놀랐다. 그래서 법정 스님과 인연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그 그림은 교수님의 아버님이 스님과 친분이 있어서 직접 그려준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법정 스님이 그리울 때면 그 교수님의 연구실 앞을 서성거린다. 그 그림 속의 스님을 뵈고 싶기

때문이다.

내 책꽂이 아랫단에는 스님의 책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 「무소유」부터 시작해서 「서 있는 사람들」, 「영혼의 모음」, 「산방한담」, 「텅 빈 충만」, 「물 소리 바람소리」, 「버리고 떠나기」, 「진리의 말씀」, 「맑고 향기롭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에는 꽃이 피네」, 「오두막 편지」, 「일기일회」, 「아름다운 마무리」등등. 스님의 책은 겹에다만 놓

아도 푸근해진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책꽂이에서 스님의 책 한 권을 빼든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 내어 읽는다. 그러면 나는 어느덧 내 마음의 뒤뜰을 거닐게 된다. 1978년 초판본 「서 있는 사람들」 뒤표지에는 흰 고무신을 신고 밭짚모자를 쓴 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스님의 뒷모습이 담긴 흑백사진이 있다. 양팔을 휘저으며 걷는 모습이 정말 또렷하고 정정하다.

**백형찬** ·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생명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서울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출가 4박 5일로 작품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예술혼을 찾아서> <죽음을 읽다> 등이 있다.

###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앱(APP)을 구축하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법문과 글 그리고 (사)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방법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며

글 • 최중태

우리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은 내가 어려운 일에 당면해 있을 때, 그런 고비 고비마다 나를 부추겨 일으켜 세워주셨다. 병상에 계실 때 어찌 계시나 싶어 찾아갔더니 기막힌 위트와 유머로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까지 어찌면 그렇게도 마음을 다 쏟아 내실 수 있으신가.

신문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추기경님을 뵙는 날에는 그 일만으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무슨 일로 해서 만나 뵙는 날에는 감격스러워 몇 날이고 가슴이 밝게 타올랐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보니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었다. 모든 이가 다 '나한테만 특별히' 마음을 베푸신 것 같았다는 것

이다.

우리 추기경님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분으로 사셨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려운 데라면 언제나 거기 서 계셨다. 그래서 언 땅도 녹이고 어두운 곳에 남몰래 등불을 밝혀두셨다. 우리네 삶은 고달팠다. 우리는 어려운 세월을 살았다. 추기경님은 고달픈 이들의 벗이었다.

지난해 그날, 며칠 밤낮으로 명동대성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곳에는 조화 한 송이 놓여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곳은 얼마나 화려했던가. 그곳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아무도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하다 못해 고요했다. 우리는 이별이 아

나라 새로운 만남의 기쁜 표징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 우리가 이별의 슬픔을 나누려 명동엘 간 게 아니었다. 나는 솔직히 용기를 얻으려 명동에 갔다.

그분은 우리 가슴에 빛을 두고 가셨다. 참으로 그분은 성자였다. 그 빛은 꺼질 줄 모르는 빛이었다. 그 빛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그 빛속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다짐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다 보고 계시면서도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

1971년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창립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그곳에 김 추기경님이 장의 신부님과 함께 나오셨다. 그 후부터 미술인들의 큰 행사에는 언제나 추기경님이 계셨다. 1994년부터 3년간에 걸쳐 교회 미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그때마다 김 추기경님은 격려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2000년 대희년(大禧年), 미술가들

의 큰 잔치 때는 김 추기경님, 정 추기경님, 교황대사님, 문공부장관님 등 어른들이 자리하여 우리가 크게 고무(鼓舞)되었다.

미술가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언제나 김 추기경님이 계셨다. 한국 교회 미술이 토착화되어 가는 과정을 역력히 보고 계셨다. 신앙이 바탕이 된 예술이 한국적 형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미술가들만 특별히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돌아가시고 보니 모든 평신도 모임에 다니며 격려해 주셨음을 알았다. 박해받는 곳이면 어디나 추기경님이 계셨다. 소외당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계셨다. 나라가 혼란의 극에 달했을 때 추기경님은 권력자들과 담판을 하셨다.

도대체 우리 김 추기경님은 몸이 몇이나 되셨던가. 그분의 손은 몇 천 개나 있었던 말인가. 여기저기 우리 사회의 고단한 곳에는 언제나 추기경님

## 보물 세 가지

글 • 노자

의 그림자가 있었다. 우리가 나랏일로  
답답해할 때면 꼭 추기경이 한 말씀  
하셨다. 그렇게 해서 생각의 물꼬를  
터주셨다.

아,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이 한 말  
씀 하셔야 하는데 그분 음성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김수환 추  
기경님이 안 계신 하늘 아래 서울 가  
톨릭 미술가회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  
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늘나라로 가는 통신이 없어 여기  
에 한 말씀을 올립니다. 김 추기경님,  
오늘 우리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십시  
오, 그리고 꼭 긴한 한 말씀 부탁합니  
다.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  
수를 청합니다. 아울러 천국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하고 있습  
니다. 우리의 예술을 잘 봐주십시오.  
우리의 예술 안에 거룩함과 밝은 빛  
을 보태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사  
랑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세 가지가 있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검소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  
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중영 선생과 장육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  
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  
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  
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  
며, 지금은 김중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다.

### 노자(老子) • 사상가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道家)의 시조이다. 춘추시대 말기 초나라의 고현(高縣)에서 태어나 주  
周나라 왕실의 수장실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노자> 2편이 있는데 '도덕경(道德經)'이라고도 불린  
다. 유교의 도덕과는 달리 우주 인생의 근원과 그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간결하면서도 의표를  
찌르는 역설적인 말이 특색이다.

## 마이에군 옥수수 추장님

글 • 광영미

육종학이 뭐냐고요? 육종학은 벼나 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더 좋은 품종으로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농작물을 병들게 하는 벌레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 풍족한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강원도 찰옥수수를 먹어 본 적이 있나요? 쫄쫄쫄쫄한 그 찰옥수수는 김순권 박사님이 개발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 재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순권 박사님의 옥수수가 성공할 수 없다고 장담했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알갱이가 보잘것없이 작다며 새 옥수수 씨앗을 두려워했지요.

“저를 믿고 심어 주세요. 만약 이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제가

모두 보상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애절한 간청으로 농민들은 마지못해 옥수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름과 충분한 물을 주며 돌봐야 하는 옥수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 다른 농작물을 짓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김순권 박사님은 여름 내내 옥수수밭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거름과 물을 날랐답니다.

“아이고! 풍년이네요, 옥수수 풍년. 내 평생 이렇게 잘 여문 옥수수는 처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옥수수 박사님 덕분이에요.”

김순권 박사님의 옥수수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전에 심었던 옥수수보다 크기가 배나 컸고 알갱이도 알

차게 여물었지요. 바람이 불면 쓰러져 죽던 옥수수가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나무처럼 잘 자랐습니다.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새 옥수수 품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떠났습니다.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지요.

‘슈바이처는 의술로 병든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했다. 나는 이 옥수수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것이다.’

김순권 박사님이 옥수수를 육종한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난에 허덕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프리카는 날씨가 매우 무더운 곳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이 느리고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도우러 온 연구원들이 김순권 박사님께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게을러서 옥수수 농사에 실패할 거예요. 괜한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를 도우러 온 연구원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왔으면서도 자기 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걸으려는 가난한 아프리카를 도와주기 위해 품종을 연구한다고 말했지만, 김순권 박사님이 성공하는 것은 영 못마땅했어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순권 박사님과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힘을 합해 옥수수 농사를 성공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큰 손해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 김순권 박사님이 품종 개발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요.

계속된 노력 끝에 김순권 박사님은

덥고 병충해가 심한 아프리카 환경에 맞는 옥수수 품종을 찾아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과 함께 옥수수 농사에 성공을 거둔 거예요. 김순권 박사는 훗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나이지리아의 명예 추장이 되었답니다.

김순권 박사님 같은 육종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요즘은 쌀과 밀, 옥수수, 감자 등의 다양한 식량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까요?

매년 약 1,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세계 인구의 10퍼센트가 넘는 약 9억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기후가 변하고 곡물 생산량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곡물을 자동차 연료로 쓰면서 식량이 부족해진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식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답니다. 전 인류가 먹기에 충분해요.

그런데도 굶어 죽는 난민이 생기고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식량과 땅을 독점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식량이 적은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밀과 쌀, 콩, 옥수수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는 걸요!

그렇다면 굶주린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걸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공짜로 나눠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일까요?

한때 강대국들은 굶주리는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빵과 스파게티를 공짜로 나누어 주었어요. 물론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아름다운 베품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강대국들의 무서운 욕심이 문제예요.

빵과 스파게티를 계속 얻어먹은 아

프리카 사람들은 점점 입맛이 바뀌어 그런 음식들만 찾게 된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많은 밀을 강대국에서 수입해야 해요. 그 사이에 강대국들은 물건값을 엄청나게 올리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비싼 밀을 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먹을거리가 무기로 변하는 무사무시한 이야기예요. 김순권 박사님과 같은 나눔 정신이 없다면 먹을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답니다.

옥수수 품종을 개발한 육종학 학자로 옥수수 박사님이라 불린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이에군' 추장으로 불린다. 마이에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먹인 사람이라는 뜻이며, 김순권 박사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저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까지 해결한 분이랍니다.

## 2019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일반고, 특성학교,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접수 마감: 2019년 3월 15일(금) 우표 소인까지
- 선정 발표: 2019년 4월 3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 자세한 내용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겨울이 가거들랑

글 • 지하련

언제부터 내가 꽃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젠 가까이 있는 분들이 흔히 나더러 무척 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지난여름엔 이웃에 사는 모부인이 도라지꽃을 내게 꺾어 준 일이 있고 또 부인의 시모孃母님에게선 해바라기꽃을 선사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꽃을 주는 두 분의 고마운 맘씨가 나를 두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나는 아름답고 건강한 부인이 고운 빛깔로 모양이 예쁜 도라지꽃을 주었을 때도 즐거웠거니와 이보다도 그 시모님이 주신 해바라기꽃은 정말로 고마웠다.

해바라기가 그 의젓하고 너그러운 품에 있어서도 그러하러니와 더욱 빛깔에 있어 호박꽃과 방불髣髴했고

또 호박꽃은 흔히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에게…… 호박꽃이 넉쿨진 담장과 그 담장 안팎을 조석으로 거닐었을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느껴지는 별로 독특한 향기를 가졌음인지는, 또 해바라기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이러한 것과 관련된 곳에서 지어진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는 그 순간 단순히 고마왔다기보다도 차라리 당황했다.

종래로 내가 아는 좋은 어머니들은 따로이 꽃을 사랑할 줄 모르셨고 착하고 알뜰한 마음이 꽃을 이별할 고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석을 다투어(원본에는 '다로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의 흐름상 서로 경쟁적으로

서두르는 뜻을 지닌 '다투어'로 판단하여 수정함) 피고 지고 움트고 시들고 하는 못내 허황한 초화草花를 구태여 사랑할 겨를이 없었던 성싶다.

이러기에 꽃을 즐겨 치우치는 헛된 버릇이 그 자녀들에게 있을 때면 어머니는 돌이켜 그 착실치 못할까를 염려했고 길지 않은 징조라 꾸중하셨다.

손녀를 업은 뒤춤으로 내게 해바라기를 주시면서,

“하도 꽃을 좋아하기……”

하고 말씀하는 부인의 시모님께 담배를 꺼내 성냥을 그어 드린 후 잠자코 앉아 무심코 내 뺨쪽한 턱에 손을 가져가며 가만히,

‘어머니는 이미 내게 꾸중할 것을 잊으셨다.’

고 생각을 하려니 어쩐지 나는 뭐가 몹시 언짢아져서…… 서러웠다. 이제 겨울이 오면 해바라기도 도라지꽃도 없어질 테니 다시는 내 화병에 꽃을 꽂지 말리라 마음먹으면서

나는 거듭 씩씩해했다.

그 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 내게 도라지꽃을 꺾어 주던 부인은 시골로 떠나고 그 시모님도 내게 해바라기 꽃씨를 따 주신 후 같이 떠나셨다. 두 분이 떠나신 후 가을이 짙어 와도 나는 내 방에 별로 꽃을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심부름하는 아이가 산에서 단풍을 꺾어 왔으나 꽃지 않았다. 단풍이 빨갭게 이쁘듯 나를 향한 아이의 마음이 이쁠지는 모르니 역시 해바라기에서와 같은 향기를, 해바라기를 주신 분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단풍에서도 아이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지 그냥 향아리에 담은 채 뜰 안 한편에 버려두어도 내 마음은 무사했다.

어느 곁에 겨울이 왔는지 올해는 유별나게 따뜻한 해라고(원본에는 ‘해운라이고로 되어 있으나 식자 과정에서 잘못된 글자가 끼어든 것으

로 보아 수정함) 모두 신기해했다. 나도 이따금 뒤뜰로 나서 볼 때가 있지만 귀가 아릴 정도의 추위란 별로 없었다.

산비탈이나 밭이랑을 보아도 조금도 겨울 같지가 않아서, 이따금 안개 낀 밤엔 봄이 아닌 가 착각될 때도 있다. 하지만 착각이란 마음으로 따져 스스로 부끄러운 경우가 많은 것 인지 나는 곧잘 이러한 종류의 착각을 그 뒤에 오는 허전하고 서글픈 감정으로 맡겨버리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따뜻한 겨울이라도 역시 어느 곳에도 사나운 겨울의 풍모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여름 해바라기꽃 이후로 어쩐지 되도록 꽃을 가까이 말리라 마음먹었다. 시골이라 벗도 잘 볼 수 없거든 누가 꽃을 가져올 리도 없고 혹 내가 서울엘 간대도 굳이 꽃을 살 리 없어 이걸 비교적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

었다.

그런데 실로 뜻밖에 일전 어느 분이 인편으로 내게 꽃을 보낸 일이 있다. 이리되면 나의 심경의 문제는 둘째로, 더욱 친분도 없는 분이랴 먼저 고마워해야 할 일이겠으나, 웬일인지 여기에도 뜻하지 못한 불행이 있어 그 꽃이 너무 밤늦게 먼 길을 오느라고 마침 그날 밤 추위에 그만 그대로 노상에서 얼고 만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 꽃을 전하는분의 애석함에도 애석함이거니와 내가 보러니 백합서견 그 화려하고 이쁜 꽃잎들이 그대로 얼음이 질린 채 동강이나 있었다.

좌우간 당황한 마음에 물을 갈아 병에 꽂기는 했으나 얼음이 차차 풀리자 파랗고 싱싱한 대궁은 그대로 폭폭 쓰러졌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꽃잎이 어질러져 더욱 언짢았다. 기왕 얼 바엔 동강이나 나지 말게 외투 자락에 넣었던 것을 탓해 보기도 했으나 죄야 그분에게 있을 턱이 없

었다.

익일 아침 서울 갈 채비를 하고 있는 분에게, 꽃을 주신분을 만나결랑 부디 꽃이 얼었다 말 말라는 부탁을 거듭 당부한 후 가위로 다 이지러진 건 그대로 중간 턱을 잘라 내고 아스파라거스로 의지를 삼아 조심히 세워 두었던 것이 그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내 책상 위에 꽂혀 있다. 날씨는 오늘도 따뜻하다.

내일 밤도 안개가 끼어 봄날처럼 푸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따뜻한 순한 밤을 두고 꽃은 왜 하필 그 밤에 나한테로 왔는지 나는 알 길이 없고…… 그저 답답하다.

이제 산란하고 침묵한 겨울밤 나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누운 채, “겨울이 가져들랑 두 번 다시 언 꽃을 생각지 말리라.” 일러 본다.

#### 지하련(1912~1960) 소설가

본명은 이현욱(李現郁). 경상남도 거창 출생으로 임화의 두 번째 부인이다. 백철의 소개로 <문장>지에 소설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해방 후 남편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했다. <체향초>〈가을〉〈산길〉〈도정〉등 여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면서도 격조가 높은 단편 소설을 남겼다.

##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추모법회

3월 2일(음. 1월 26일) / 오전 11시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 ● 보호종료아동

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서비스(신규 240호)
  - 보호종료 5년 내 아동(원룸형 주거지원)
2.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신규 880명)
  -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 지능아동 대상(학습·사회성 향상 교육수준)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신규 4,900명)
  -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 2년 내 아동

## ● 발달장애인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신규 1,500명)
  - 최종증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신설)
2. 발달장애인 부모멘토링(신규 3,400명)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자조모임·동료상담, 자녀 진로코칭 등 지원)

## ● 장애인

1. 장애인 활동지원(7.1만 명, 단가 10,760원 → 7.8만 명, 12,960원)
  - 만6~만65세 미만 중증장애인(가사 및 이동 등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 지원)
  - 대상 확대 : +7,000명, 단가인상 : +2,200원
2. 장애인 연금(25만 원 → 25.5만 원 / 30만 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 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30만 원(19년 4월)

\*주거·교육·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 25.5만 원(19년 4월)

3. 장애인 일자리(1.7만 명 → 2.0만 명)
  - 미취업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제공(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4. 장애인 근로지원인(1,200명 → 3,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자(사업주 동의 필요)
  - 중증장애인의 수화통역 등 부수적 업무 지원(자부담 300원/시간)
5.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신규 2,000개소)
  - 장애인 주요 이용 공공시설 2천개소 대상
  - \* 설치 현황(전국) : 1,135개소 설치(14년 7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 ● 한부모

1. 아동양육비(만 14세 미만, 월 13만 원 → 만 18세 미만, 월 20만 원)
  -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2. 한부모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규 125개소)
  - 시설별 아이돌보미 2명 무상지원

## ● 노숙인

1. 노숙자 특활 자활사업(신규 200명)
  - 대도시 거리 노숙인(심리치유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제공)

정부가 발표한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이웃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 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시길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0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

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 중단 중입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

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7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6, 23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 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 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1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태극권, 형익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 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화'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유언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유언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화원을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로운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와 주변환경 및 시설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설합동차례

- 일시 : 2월 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접수번호 1~500)   
설법전 (접수번호 501부터)

###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일시 : 2월 2일(토) 오전 9시 50분 ~ 2월 4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입춘방은 2월 4일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2월 2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정초기도

- 일시 : 2월 7일(목) ~ 13일(수) 오전 9시 50분
- 금강역 독송 정초칠일기도: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2월 9일(토) 오후 8시 ~ 2월 10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안거 해제 및 90일 관음기도 회향

- 회향 : 2월 1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보름기도

- 일시 : 2월 1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춘계관음기도 입재

- 입재 : 2월 2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2월 22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2월 28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2월 2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설합동차례	2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설법전
정초기도	2월 7일(목) ~13일(수)	오전 9시 50분~오후 2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9일	저녁 8시 ~ 새벽3시50분	극락전
보름기도	2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회향	2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2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2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2019년 길상사 불교강좌 수강생 모집

### 경 전 반

- ◆ 개 강 : 3월 5일(화)
- ◆ 응시자격 : 누구나 수강 가능
- ◆ 강의시간 : 매주 (화) 오후2시~4시
- ◆ 과 목 : 법화경
- ◆ 수 강 료 : 7만원 (교재비 별도)

### 불 교 입 문

- ◆ 개 강 : 3월 6일(수)
- ◆ 응시자격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 강의시간 : 매주 (수) 주간 - 오후 2시~4시
- ◆ 수 강 료 : 8만원 (교재비 포함)

### 불 교 대 학

- ◆ 개 강 : 3월 7일(목)
- ◆ 응시자격 : 기본 교육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 강의시간 : 매주 (목) 주간 - 오후 2시~4시
- ◆ 수 강 료 : 학기등록 20만원 (1년 40만원)

- 강 의 장 소 : 설법전  
- 상 담 및 접 수 : 종무소 02)3672-5945 (입금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추모법회

3월 2일(음. 1월 26일) / 오전 11시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 2019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뛰어난 성적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추천서

- 추천서는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기재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필수

### ②학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마감 : 2019년 3월 15일(금)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9년 4월 3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